

해외의약뉴스

클로람부실과 오비누투주맵의 병용투여가 백혈병 노인 환자들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클로람부실(chlorambucil)과 오비누투주맵(obinutuzumab)의 병용투여가 백혈병 노인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일 과학자들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평균연령 73세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클로람부실과 오비누투주맵을 사용한 환자의 관해율 및 관해기간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오비누투주맵을 또 다른 항체약물인 리툽시맵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오비누투주맵이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클로람부실만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 오비누투주맵과 클로람부실을 병용 투여한 환자들의 전반적인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키워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오비누투주맵, 클로람부실

클로람부실과 오비누투주맵의 병용투여가 백혈병 노인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일 과학자들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평균연령 73세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1월 8일자 온라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되었다. 피험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총 세 개의 군으로 임의 배정하였다.

첫 번째 군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노인 환자에게는 표준 화학요법제인 경구용 클로람부실을 투여하였다.

두 번째 군은 클로람부실에 리툽시맵(rituximab)을 병용 투여하였다. 리툽시맵은 수년 동안 젊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다른 제형의 화학요법제와 병용 투여하여 사용되어 온 효과적인 치료약물이다.

세 번째 군은 클로람부실과 함께 고가의 항체약물인 오비누투주맵을 병용 투여하였다. 두 약물은 정맥 투여하였다.

이 연구는 오비누투주맙과 리툭시맙에서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진들은 오비누투주맙과 클로람부실의 병용투여가 다른 두 가지 치료방법보다 노년층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제조사인 Genentech사에 따르면, 오비누투주맙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주입물 반응(infusion reaction), 혈구 수 감소, 발열, 기침, 근육격계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오비누투주맙은 고가의 약물로 6개월 치료기간 동안 \$41,300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William Wierda 박사¹⁾는 ‘노인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만큼 리툭시맙을 포함한 집중적인 화학요법치료를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치료제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다. 우리 연구진들은 노년층에게 효과적이면서 환자들이 잘 견딜 수 있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노인 환자들을 위한 표준 화학요법제로는 클로람부실을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Wierda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 클로람부실과 오비누투주맙을 사용한 환자의 관해율 및 관해기간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오비누투주맙을 또 다른 항체약물인 리툭시맙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오비누투주맙이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클로람부실만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 오비누투주맙과 클로람부실을 병용투여한 환자들의 전반적인 생존율이 향상되었다.’고 덧붙였다.

백혈병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나며,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merican Cancer Society에 의하면 2013년 미국에서 16,000건 가량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진단되었고, 미국 국립암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5년 생존율은 약 83%이다.

Lee Greenberger²⁾ 수석 연구원은 ‘중간 나이(median age)가 72세인 노인 환자들에게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노인 환자들은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공격적인 치료방법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이번 연구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노인 환자의 치료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노인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표준 치료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비록 이번 연구결과가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약물의 병용요법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원문정보 ■

<http://consumer.healthday.com/cancer-information-5/leukemia-cancer-news-99/new-drug-combo-may-help-older-leukemia-patients-with-cll-683696.html>

1)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leukemia at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2) A chief scientific officer of the Leukemia & Lymphoma Society